

초등학교에서 전통 생활 문화 지도를 위한 노동요 고찰 및 풍속화 통합 방안 연구

김 현 정*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전통 생활 문화를 교육하기 위하여 노동요 지도에 풍속화를 접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재 시행중인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고찰하여 풍속화와 노동요 지도가 가능한 학년을 선정하고, 통합 방법을 모색하였으며, 풍속화와 노동요를 고찰하여 초등학교에서 지도하기에 적합한 작품을 선정하고 두 영역에서 공통 주제를 찾아 지도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학교 현장에서 지도해 보고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생들은 노동요만을 학습하였을 때 보다 풍속화와 노동요를 함께 학습하였을 때 좀 더 이해가 쉬웠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노동요와 풍속화를 통합하여 지도하는 것이 전통 문화 교육에서 효율적임을 알 수 있었다.

※ 주제어: 국악교육, 민요 교육, 노동요, 풍속화 교육

차 례

- I. 서 론
- II. 교육과정 및 교과서 고찰
 - 1. 교육과정 및 교과서 고찰
 - 2. 교육내용 통합 방안
- III. 지도 내용 선정 및 방안
 - 1. 풍속화 고찰
 - 2. 노동요 고찰
 - 3. 지도 내용 및 방안
- IV. 요약 및 결론

* 대구도남초등학교 교사, 대구교육대학교 강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통 예술에는 현대 예술과 비교하여 차별화된 가치가 있다. 그것은 바로 전통 문화를 체득할 수 있다는 점이며, 전통 문화는 민족성과 시대성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러한 면은 전통 음악 교육에서도 강조되는 부분이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전통 음악들이 제시되어 있다. 특히 민요 지도에서도 예전에는 통속 민요가 중심이 되었지만, 최근에 와서는 다양한 종류의 향토 민요가 지도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다.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도 유희요, 놀이요, 노동요 등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향토 민요는 일반 서민들의 생활 모습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전통 생활 문화를 지도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현재까지 발굴된 향토 민요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유희요와 노동요이며, 노동요가 많이 전해진다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노래와 함께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노동요는 농업, 어업, 수공업 등 여러 사람이 함께 호흡을 맞춰 일을 해야만 했던 옛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매개체였으며, 특히 흥을 좋아했던 우리 민족에게는 함께 힘을 북돋우며 호흡을 맞추으로써 일을 하는 그 시간 또한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즐겁게 해내고자 했던 긍정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므로 노동요는 우리 전통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예술이었으며, 노동요를 지도할 때에는 음악 특징도 중요하지만,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음악의 쓰임과 그 속에 담긴 전통 생활 문화 또한 중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노동요를 지도함에 있어 다른 자료와의 통합을 통하여 전통 생활 문화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특히 당시의 생활상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그림 자료와의 통합 방안을 모색하였다. 전통 회화 또한 전통 생활 문화 교육에서 중시되는 제재이며, 노동요와의 통합에는 전통 회화 중에서도 서민들의 삶이 소재가 되는 풍속화와의 통합이 적합하다고 본다.

연구는 크게 세 단계로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시행중인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고찰하여 풍속화와 노동요 지도가 가능한 학년을 선정하고, 통합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둘째, 풍속화와 노동요를 고찰하여 초등학교에서 지도하기에 적합

한 작품을 선정하고 두 영역에서 공통 주제를 찾아 지도 내용을 선정하고자 한다. 셋째, 풍속화와 노동요 통합 지도 내용을 학교 현장에서 지도해 보고 지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향토민요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2000년 MBC 예술단에서 발매된 ‘한국민요대전’이며, 한국민요대전은 MBC가 1989년부터 1995년 까지 남한 일대의 향토민요를 채집하여 발간한 음반자료이며, 총 103장의 CD로 구성되어 있고 수록곡은 2,255곡이나 되어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향토민요 자료 중 조사의 충실성이 인정되고 신뢰도가 매우 높은 자료이다. 그리고 교육과정 고찰에서는 현재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고찰

음악 지도에서 미술을 접목한 연구는 현재까지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전통 음악 지도에 미술을 통합한 연구에는 김나래(2011), 정은경과 장유린(2012), 최지환(1999)의 연구가 있다. 김나래의 연구에서는 판소리와 조선후기 회화를 연계하여 지도하고자 하였으며, 지도 대상은 고등학교 1학년이다. 지도 내용은 판소리와 풍속화의 해학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 연구는 민요에 전통 회화를 접목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 볼 수 있다.

정은경과 장유린의 연구에서는 전통 문화 중에서도 ‘풍류’를 주제로 하여 음악과 사회 교과를 통합하여 수업을 설계하였으며, 5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풍속화를 활용하여 조상들의 삶과 풍류에 대한 지도 내용을 제시하고, 줄풍류와 삼현육각에 대한 수업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전통 문화를 여러 각도에서 지도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으며, 특히 학교 현장에 적용하여 지도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되어 질 수 있다. 그러나 풍속화 제시에 있어 신윤복의 ‘상춘야흥’, ‘청금상련’과 같이 술을 마시거나 남녀가 함께 노니는 모습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작품을 학습 제재에 포함시키고 있어 제재의 적합성 기준에 의문이 든다.

최지환의 연구에서도 전통음악과 전통 미술의 접목을 시도하였으며, 자연추구(自然追求), 조화(調和), 포괄성(包括性), 여유(餘裕), 절제(節制)와 흥(興), 비정제성(非整齊性), 민예미(民藝美), 곡선(曲線)의 아름다움을 제시하여 전통 회화와 전통 음악의 통합 교육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 외에 현대 음악을 소재로 한 학습에서 미술과 음악을 접목한 시도는 김민영(2013), 김성민(2005), 김혜숙(2005), 송자영(2007), 이정민(2008) 허정은(2011) 등의

연구가 있으며, 김민영의 연구에서는 기보법체계를 응용한 암호코드 제작, 악기 음색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리듬감을 미술작품으로 표현하기, 음악 팸플렛 만들기 등의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그 외의 연구에서도 음악을 듣고 느낌을 미술 장면으로 표현하거나 같은 시대에 행해진 미술과 음악 작품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고 미술 작품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현재까지 진행된 선행연구에서는 음악과 미술의 통합 가능성은 어느 정도 대두되었으나, 풍속화와 노동요를 접목하여 서민들의 삶의 모습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풍속화와 노동요를 통합한 연구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II. 교육과정 및 교과서 고찰

1. 교육과정 및 교과서 고찰

1) 음악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고찰

2009 개정 초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 중 향토민요 이해와 관련된 내용은 3-4학년에서 ‘동요나 민요를 듣고 부르거나 보고 부를 수 있다’, ‘노동요, 놀이요, 춤곡, 행진곡 등을 듣고 음악의 쓰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생활 속에서 우리 음악을 찾아 볼 수 있다’ 등이며, 5-6학년에서는 ‘동요, 전래 동요, 민요 중 한 곡을 외워서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한다’, ‘노랫말에 맞는 말붙임새로 부른다’, ‘메기는 소리의 가사를 바꾸어 부른다’, ‘우리 음악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등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p. 5). 이와 같이 민요를 익혀 부르는 활동은 학년에 관계없이 제시되어 있으나, ‘노동요’의 쓰임을 이해하는 내용은 3-4학년에 제시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3-4학년을 지도 학년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2) 미술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고찰

2009 개정 3-4학년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풍속화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3-4학년에서는 ‘미술사’ 항목에 ‘미술의 시대적, 지역적 배경에 흥미와 관심 갖기’, ‘미술 비평’ 항목에 ‘미술 작품에 흥미와 관심 갖기’ 등이 있으며(교육과학기술부, 2012. p. 5), 각 교과서에서 풍속화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3-4학년 미술 교과서에서 풍속화 관련 내용

출판사(저자)	단원	지도 내용
교학사 (노영자 외)	7. 전통 회화	먹으로 그린 작품 보고 표현 방법 탐색하기
	13. 미술과 감상	미술 작품의 작가와 시대적, 지역적 배경 알아보기
금성 (이은적 외)	4. 미술사와 미술비평	전통 미술 감상하기, 우리 미술 만나기
	5. 전통문화와 다문화	수목화 감상하고 그리기
두산동아 (김정희 외)	15. 붓과 먹은 내 친구	먹으로 그림 그리기
	21. 미술 작품과 친해지기	미술작품 감상하고 새로운 작품 만들거나 감상문 쓰기
비상교육 (박은덕 외)	6. 가까운 미술관	전통 미술 특징 찾아 자료집 만들기
	7. 선비의 방	먹의 성질 이해하고 표현하기
	13. 미술가의 작업실	미술 작품 감상하고 느낌과 생각 이야기하기
아침나라 (김동영 외)	4-4. 우리 그림 여행	수목화 특징 알아보고 그려보기
	6-1. 전통의 아름다움을 이어서	전통 미술 감상하고 아름다움 느끼기
	7-1. 작품을 읽고 말하기	작가와 배경 탐구를 통해 작품에 관심 가지기
천재 (안금희 외)	5. 전통 미술의 세계로	수목화의 표현 방법 알고 그려보기
	12. 과거 속 그림 나라로	작품에 담긴 생활상 감상하고, 시대적 지역적 배경에 관심 갖기, 전통 미술 재구성하기

이와 같이 초등학교 3-4학년 미술 교과서에는 우리나라 전통 미술, 즉 수목화나 수목채색화 등을 감상해 보거나 직접 그려보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으며, 조선시대 산수화와 풍속화가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다. 그러므로 3-4학년에서 풍속화를 지도하는 것은 현재 교육과정과 학교 현장 교육에 부합되는 내용이라 볼 수 있다.

2. 교육내용 통합 방안

교육내용의 통합이란 학습활동을 횡적으로 조직하는 것을 말하며, 이와 관련하여 Tyler(1949)는 ‘교육과정 경험의 수평적 관련성’이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박도순과 변영계가 정리한 통합 원리를 기초로 내용을 통합하고자 하며, 박도순과 변영계는 George Posner와 Kenneth Strike의 계열성 범주화를 다섯 가지로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첫째, 개별 교과목을 독립적으로 취급하는 분과형, 둘째, 개별교과목을 각기 독립된 과목으로 취급하되,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교과목을 체계적으로 관련시키는 상관형, 셋째,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교과목을 융합한 융합형, 넷째, 동일 교과영역에 속하는 각 과목들의 구체화를 깨뜨려 하나의 교과영역 내의 지식을 포괄적으로 조직하는 학습내용 중심의 조직형과 지식보다 생활, 흥미, 경

험을 중시하여 동일한 경험 내에 속하는 중요한 경험을 조직하는 학습경험 중심의 조직형 등의 광역형,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경험을 조직하는 중핵형이다(이성호, 2004. pp. 157-162 참고).

풍속화와 노동요 지도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통합 방법 중 미술 교과와 음악 교과의 성질은 그대로 두면서 관련 내용을 통합시키는 ‘상관형’으로 내용을 조직하고자 한다. 교육과정 내용을 고려한 통합 내용을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통합 지도 내용

구분		음악	미술
통합 교육 내용	교육 과정 내용	- 동요나 민요를 듣고 부르거나 보고 부를 수 있다 - 노동요, 놀이요, 춤곡, 행진곡 등을 듣고 음악의 쓰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 생활 속에서 우리 음악을 찾아 볼 수 있다	- 미술의 시대적, 지역적 배경에 흥미와 관심 갖기 - 미술 작품에 흥미와 관심 갖기
	지도 내용	- 일노래 부르기 - 일노래 특징 이해하기 - 전통 생활문화에 관심 가지기	- 풍속화 감상하고, 특징 이해하기 - 풍속화 다양하게 나타내기

Ⅲ. 지도내용 선정 및 방안

1. 풍속화 고찰

풍속화는 대체적으로 일상생활의 단면(斷面)을 주제로 삼는 그림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인간일체(人間一切)의 현상과 사는 모습을 표현한 것을 뜻한다(안희준, 1997. p. 310). 우리나라에서 풍속화가 나타난 시기는 선사시대부터이며, 풍속화의 발전은 조선시대 중기와 후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이태호, 1996. p. 141). 윤두서를 시작으로 조영석, 김홍도, 김득신, 신윤복 등이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풍속화가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작가의 작품들에는 일반 백성들의 삶이 중심이 된다. 조선 후기 풍속화에서 일반 백성들의 생활상이 나타난 작품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조선 후기 풍속화

작가	작품명
윤두서	짚신 삼기, 돌 깨는 석공, 채애도(採艾圖), 목기 깎기
조영석	어선도, 말 징박기, 바느질, 절구질, 작두질
김홍도	주막, 새참, 무동, 씨름, 서당, 대장간, 그림 감상, 편자 박기, 담배 썰기, 신행, 행상, 나룻배, 우물가, 길쌈, 고기잡이, 기와이기, 장터길, 빨래터, 논갈이, 노중 상봉, 점괘 보기, 고누놀이, 활쏘기, 벼타작, 자리 짜기
김득신	귀시도, 반상도, 투전, 대장간, 짚신 삼기, 자리짜기
신윤복	단오풍경, 거문고 줄 매기, 어물 장수

이들 작품들은 생활의 장면을 고스란히 옮겨놓았기 때문에 의복, 일의 방법, 도구 등이 자세히 나타나며, 사실적 묘사가 두드러지고, 소재 또한 다양하여 전통문화교육 자료로 손색이 없다. 그러나 신윤복의 ‘단오풍경’과 ‘어물장수’, 김홍도의 ‘새참’은 여인들의 상체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육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김홍도의 ‘주막’, ‘무동’, ‘씨름’, ‘서당’, ‘그림 감상’, ‘신행’, ‘행상’, ‘나룻배’, ‘장터길’, ‘노중상봉’, ‘점괘 보기’, ‘고누놀이’, ‘활쏘기’, 조영석의 ‘어선도’, 김득신의 ‘반상도’, ‘투전’ 등도 노동요와 접목하기에 주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제재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위에서 선별한 작품들을 일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여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일의 종류에 따른 풍속화 분류

종류	작품
농업	논갈이(김홍도), 벼타작(김홍도), 담배 썰기(김홍도)
어업	고기잡이(김홍도)
토건	돌 깨는 석공(윤두서), 기와이기(김홍도)
벌채	채애도(윤두서)
수공	짚신 삼기(윤두서), 목기 깎기(윤두서), 말 징박기(조영석), 바느질(조영석), 작두질(조영석), 절구질(조영석), 대장간(김홍도), 편자박기(김홍도), 길쌈(김홍도), 자리짜기(김홍도), 대장간(김득신), 짚신 삼기(김득신)
가사	우물가(김홍도), 빨래터(김홍도),

2. 노동요 고찰

한국민요대전에 수록된 향토 민요는 2천 5백곡이 넘으며, 본 절에서는 이러한 향토 민요 중 풍속화와 접목할 수 있는 노동요를 선별하고, 선법과 장단을 분석하여 초등학교 제재곡으로 적합한 곡을 제시하고자 한다. 노동요의 가사를 바탕

으로 풍속화와 접목이 가능한 노동요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농업노동요 중에서 ‘논갈이’와 관련이 있는 노래는 ‘홍천 논 삶는 소리’, ‘서귀포 논 고르는 소리’이며, ‘벼타작’과 관련이 있는 노래는 ‘홍성 벼 떠는 소리’, ‘서산 벼 드리는 소리’이고, ‘담배 썰기’와 관련 있는 노래는 ‘음성 담바구 타령’이다. 그리고 ‘고기잡이’와 관련이 있는 어업노동요는 ‘인천 그물당기는 소리’, ‘인천 고기 푸는 소리’, ‘인천 만선평장소리’, ‘명주 그물당기는 소리’, ‘태안 고기 푸는 소리’, ‘태안 만선평장소리’, ‘신안 고기 푸는 소리’, ‘여천 멸치잡이소리(거문도벚노래)’, ‘삼천포 그물당기는 소리’, ‘북제주 갈치 낚는 소리’ 등이며, ‘기와이기’와 관련된 토건노동요는 ‘화천 집터 다지는 소리(에헤리 지경이요)’, ‘연기 집터 다지는 소리(지데미 소리)’이다. ‘채에도’와 관련된 노동요는 ‘보은 나물노래’, ‘의령 나물 뜯기’ 등이며, 수공노동요 중 ‘바느질’과 관련된 노동요는 ‘울진 삼삼는 소리’이다. ‘작두질’과 관련된 노래는 ‘삼척 풀 썬는 소리’이며, ‘대장간과 관련이 있는 노동요는 ‘남제주 풀무질 소리’이고, ‘길쌈’하는 내용을 담은 노래는 ‘영동 삼삼는 소리’, ‘곡성 삼삼는 소리’, ‘고성 삼삼는 소리’, ‘울진 삼삼는 소리’, ‘문경 실짚는 소리(물레질 소리)’, ‘완도 실짚는 소리’, ‘고성 실짚는 소리’ 등이며, ‘빨래터’와 관련 있는 노래는 ‘함평 진주낭군’이다. 이 외에 ‘말 징박기’, ‘편자박기’, ‘목기 깎기’, ‘짚신 삼기’, ‘자리 짜기’, ‘돌 깨는 석공’, ‘절구질’, ‘우물가’와 관련이 있는 노동요는 찾아보기 어렵다.

위에서 제시한 풍속화와 관련이 있는 30곡의 장단과 선법을 분석하고 특징을 나타내면 <표 5>와 같다.

<표 5> 노동요 장단 및 특징

풍속화	노동요	장단	토리	특징
논갈이	홍천 논 삶는 소리	불규칙	메나리	노래 중간에 말하듯이 부르는 부분이 많음
	서귀포 논 고르는 소리	불규칙	불분명	음절의 끝을 짧게 들어올리는 시김새가 두드러짐
벼타작	홍성 벼 떠는 소리	중중모리	메나리	메기고 받는 형식
	서산 벼 드리는 소리	중중모리	메나리	메기고 받는 형식
담배썰기	음성 담바구 타령	중중모리	메나리	가사에 담배를 만드는 과정이 나타남
고기잡이	인천 그물 당기는 소리	중중모리	불분명	메기는 소리와 받는 소리가 엇갈려 진행됨
	인천 고기 푸는 소리	굿거리	불분명	메기는 소리와 받는 소리가 불규칙적으로 진행됨
	인천 만선평장소리	굿거리	수심가	사물놀이 반주와 함께하여 매우 흥겨움

풍속화	노동요	장단	토리	특징
	명주 그물 당기는 소리	중모리	메나리	선율이 단순하고 가사가 비관적임
	태안 고기 푸는 소리	굿거리	메나리	지르는 소리가 많음
	태안 만선풍장소리	중중모리	메나리	말붙임새가 다양함
	신안 고기 푸는 소리	중모리	육자배기	장단의 한 배가 김
	여천 멸치잡이 소리	굿거리	육자배기	현재 교과서에 수록됨
	삼천포 그물 당기는 소리	불규칙	불분명	말 하듯이 흥얼거림
	북제주 갈치 낚는 소리	중모리	제주토리	갈치 낚는 모습이 잘 드러남
기와이기	화천 집터 다지는 소리	중중모리	메나리	메기고 받는 형식
	연기 집터 다지는 소리	중중모리	메나리	메기고 받는 형식
채에도	보은 나물노래	중모리	불분명	말 하듯 흥얼거림
	의령 나물 뜯기	중중모리	메나리	말 하듯 흥얼거림
바느질	울진 삼삼는 소리	중중모리	메나리	말 하듯 흥얼거림
작두질	삼척 풀 썬는 소리	불규칙	불분명	말 하듯 흥얼거림
대장간	남제주 풀무질 소리	중중모리	제주토리	시김새가 특징적임
길쌈	영동 삼 삼는 소리	불규칙	불분명	말 하듯 흥얼거림
	곡성 삼 삼는 소리	중모리	불분명	말 하듯 흥얼거림
	고성 삼 삼는 소리	중모리	메나리	신세한탄 가사
	울진 삼 삼는 소리	중중모리	메나리	신세한탄 가사, 말 하듯 흥얼거림
	문경 실 잣는 소리	불규칙	메나리	말 하듯 흥얼거림
	완도 실 잣는 소리	불규칙	육자배기	장단의 한 배가 매우 김
	고성 실 잣는 소리	불규칙	불분명	장단의 한 배가 매우 김, 신세한탄 가사
빨래터	함평 진주낭군	중중모리	육자배기	빨래하는 모습이 잘 나타남, 신세한탄 가사

이들 노래는 자연 발생적이기 때문에 장단과 토리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으며, 초등학교에서는 장단이 너무 불규칙적이거나 호흡이 길어 말붙임새나 장단을 인지하기가 어려운 곡은 제재곡으로 부적합하다. 또한 흥얼거리듯 부르는 노래들은 선율 진행이 불분명하며, 시김새 또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토리를 규정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곡 또한 제재곡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가사의 내용이 불건전하거나 비관적인 곡도 제재곡으로는 맞지 않다.

‘흥천 논삶는 소리’는 소 두 마리를 몰면서 부르는 소리로 박자가 불분명하여 교육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음성 담바구 타령’은 장단도 규칙적이고 토리도 분명한 편이나 가사 내용에서 ‘담배 한대를 붙여 무니 목구녕 안에 실안개 돈다’ 등 초등학교 교육에는 맞지 않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제재곡으로는 부적합하다. ‘인천 그물 당기는 소리’ 또한 장단은 규칙적이거나 메기는 소리와 받는 소리가

서로 불규칙적으로 교차하여 불리지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가사를 음미하거나 가창활동을 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명주 그물 당기는 소리’도 장단은 규칙적이거나 가사가 ‘우리 팔자는 무신 팔자가 이놈의 종사가 웬 말이요’와 같이 매우 비관적이므로 교육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태안 만선 풍장소리’ 또한 말붙임새가 장단의 흐름과 관계없이 진행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 제재곡으로는 부적합하다. 또한 ‘신안 고기 푸는 소리’는 장단의 한 배가 길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가창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외에 장단이 규칙적이고, 선율 진행이 명확하며, 토리가 분명하고, 가사 내용 또한 건전하여 초등학교 제재곡으로 적합한 곡은 홍성 벼 떠는 소리, 서산 벼더리는 소리, 화천 집터 다지는 소리, 남제주 풀무질소리, 북제주 갈치 낚는 소리, 인천 만선 풍장소리, 곡성 삼삼는 소리, 함평 진주낭군 등이다. 이러한 노래들은 원형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여러 번 반복하는 과정에서 박이 늘어지거나 가사의 일부분이 건전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교육용 악보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재곡들의 장단과 선율 특징을 고려하여 악보를 제시하면 [악보 1] - [악보 7]과 같다.

‘홍성 벼 떠는 소리’는 김홍도의 ‘벼타작’ 그림과 같이 벼단을 참나무로 엮은 개상에 벼를 때리며 부르는 노래이다. 메기고 받는 방식으로 부르며, 시김새는 퇴성이 나타나고, 악보는 [악보 1]과 같다.

홍성 벼 떠는 소리

충청남도 민요
김현정 채보

들 왔 나 들 왔 네 에 야 추 에 야 추

1. 참 나 무 개상 에 에 야 호 2. 우리 가 살대 는 3. 오 성 산 상상

잡 백 풍 구 년 이 밥 사 들 먹 나 자

헤 헤 야 헤 헤 이 어 가 헤 에 헤 이 나 간 다

[악보 1] 홍성 벼 떠는 소리

‘화천 집터 다지는 소리’는 집을 지을 때 땅을 다지면서 부르던 노래이며, 노래의 가사에는 집을 짓고 나서 복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노래 역시 매기고 받는 방식으로 부르며, [악보 2]의 첫째 단과 같이 매기는 소리와 받는 소리가 같은 가사로 진행되며, 선율형도 거의 같으나 말붙임새가 다른 특징이 있다. 장단의 한 배는 굿거리장단과 비슷하고, 반복되는 선율을 고려하여 악보를 제시하면 [악보 2]와 같다.

화천 집터 다지는 소리

강원도 민요
김현정 채보



[악보 2] 화천 집터 다지는 소리(에허리 지경이요)

‘남제주 풀무소리’는 쇠를 녹여 주물을 만드는 쇠부리터에서 풀무질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이고, 가사에는 김홍도의 ‘대장간’에서 뒤 쪽 아이가 하는 일이 그대로 나타난다. 노래에는 추성, 전성 등의 시김새가 빈번히 나타나며, 시김새와 선율을 고려하여 악보로 나타내면 [악보 3]과 같다.

풀무질 소리

제주도 민요
김현정 채보



[악보 3] 남제주 풀무질소리

‘북제주 갈치 낚는 소리’는 가창자가 갈치 낚는 현장의 분위기를 실제처럼 재현하여 부르는 노래이며, 이 노래는 떠는 시김새가 특징적이다. 박의 한 배는 중모리장단과 비슷하지만, 선율 진행에서 중모리 장단으로 반주하기에는 말붙임새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노래를 지도할 때에는 굳이 장단을 연주하기 보다는 노래를 부르는 상황을 생각하며 무릎으로 박을 짚으며 부르는 것이 노래의 분위기와 어울린다.

갈치 낚는 소리

제주도 민요
김현정 채보



[악보 4] 복제주 갈치 낚는 소리

‘곡성 삼 삼는 소리’는 아낙네들이 배를 짤 때 부르는 노래로 가사에는 늦은 밤까지 삼을 삼느라 고생하는 모습과 그 때의 심정이 나타난다. 그리고 방언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기 전 가사에 대한 학습이 선행되어야 하며, 가사를 선별하여 나타내면 [악보 5]와 같다.

곡성 삼삼는 소리

전라남도 민요
김현정 채보



[악보 5] 곡성 삼삼는 소리

‘인천 만선 풍장소리’는 ‘배치기 소리’라고도 하며, 조기잡이배가 돈을 많이 벌어서 배에 봉기(奉旗)를 꽂고 풍물을 치고 돌아오면서 하는 소리로 마을에서는

이 소리가 들리면 음식과 술을 준비한다. 서해안에서는 고사를 지내거나 흥겨운 마을 잔치가 있을 때 이 노래를 부르며, 선율이 단순하고 흥겨운 특징이 있다. 국립국악원 발간된 교육용 국악 표준 악보를 제시하면 [악보 6]과 같다.



[악보 6] 인천 만선 풍장소리(국립국악원, 2009, p. 10)

‘함평 진주낭군’은 팔래터에 팔래를 하러 가라고 재촉하는 내용이며, 선율이 단순하여 초등학생에게 지도하기에 무리가 없다. 단, 가사에서 신세 한탄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재곡으로 제시할 때에는 가사를 선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선율 반복과 가사 내용을 고려하여 악보를 제시하면 [악보 7]과 같다.

함평 진주낭군

노래: 윤수복(75세) / 1989
재보: 김현정



[악보 7] 함평 진주낭군

이와 같이 풍속화와 접목할 수 있는 향토 민요는 각 지역별로 다양하며, 풍속화와 노동요를 함께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초등학교에서 풍속화와 접목 가능한 향토 민요

풍속화	노동요		생활 모습
	제목	일의 종류	
벼타작	홍성 벼 떠는 소리	쌀알을 떨어내면서 부른 노래	손으로 벼타작 하는 모습
	서산 벼드리는 소리	죽가래질과 키질로 알곡 고르기	죽가래질
기와 이기	화천 집터 다지는 소리	집을 지을 때 땅을 다지면서 부른 노래	손으로 집을 짓는 모습
대장간	남제주 풀무질소리	쇠부리터에 풀무질을 하면서 부른 노래	쇠를 이용하여 물건을 만드는 모습
고기 잡이	북제주 갯치 낚는 소리	밤에 마을 앞바다에 갯치를 잡느라 낚시줄을 드리우고 부른 노래	그물을 이용하여 고기 잡는 모습
	인천 만선 풍장소리	조기잡이배가 돈을 많이 벌어서 배에 봉기(奉旗)를 꽂고 풍물을 치고 돌아오면서 하는 소리	만선을 축하하며 마을 잔치를 하는 모습
길쌈	곡성 삼삼는 소리	늦은 밤까지 삼을 삼으면서 부른 노래	물레질, 베 짜는 모습
빨래터	함평 진주난궁	며느리에게 빨래를 하러 가라는 내용	넷가에서 빨래하는 모습

3. 지도 내용 및 방안

1) 차시별 목표

교육과정과 지도 내용을 고려하여 차시별 지도 목표를 제시하면 <표 7>과 같다.

<표 7> 차시별 목표

학년	차시	목표
3	1	• 듣고 부르기로 노동요를 익히고, 시김새를 표현하며 향토 민요를 부를 수 있다. • 다양한 노동요를 감상하고 노래의 쓰임을 알 수 있다.
	2	• 풍속화를 감상하고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 풍속화에 나타난 일의 모습과 노동요의 내용을 관련지어 보고 조상님들의 생활 모습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1차시에서는 노동요를 불러보고, 다양한 노동요를 감상함으로써 노동요의 쓰임을 알아보도록 한다. 2차시에서는 풍속화를 감상하고 특징을 이해하며, 1차시에 배운 향토민요와 관련지어 일의 모습과 생활 모습을 짐작해 보도록 하였다. 수업은 ‘대구도남초등학교’ 3학년 4개 반 1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2) 지도 방안

(1) 1차시

1차시에서는 노동요를 익히고 감상하도록 하며, <표 7>의 수업 목표를 기초로 1차시의 학습 순서와 지도 자료를 제시하면 <표 8>과 같다.

<표 8> 1차시 학습 순서 및 자료

차시	단계	활동 내용	자료
1	도입	· 일노래 동영상 감상하기	일노래 동영상
	전개	· 듣고 부르기로 제재곡 익히기 · 메기고 받는 방식으로 부르기 · 다양한 노동요 감상하기	향토 민요 악보, 다양한 노동요 음원, 음악 학습지
	정리	· 음악의 느낌과 쓰임 이야기하기	

1차시의 도입 단계에서는 ‘실제로 노래를 부르면서 일하는 장면’을 제시하여 향토 민요가 생활에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개 단계에서는 듣고 부르기로 노래를 익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일노래를 감상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음악의 쓰임 또한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수업 내내 학생들은 흥미롭게 참여하였으며, 특히 다양한 일노래를 감상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감상하였다. 학생들은 다함께 흥겹게 노래를 부르며 일을 한 것에 대해 “우리 조상님들은 일을 힘들다 생각하지 않고 함께 힘을 북돋우며 즐겁게 한 것 같다”고 하기도 하였다.

(2) 2차시

2차시에서는 풍속화를 감상하고 전통 생활 모습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표 7>의 수업 목표를 기초로 2차시의 학습 순서와 지도 자료를 제시하면 <표 9>와 같다.

<표 9> 2차시 학습 순서 및 자료

차시	단계	활동 내용	자료
2	도입	· 수목화 알아보기	감상 자료
	전개	· 다양한 풍속화 감상하기 · 창의적으로 풍속화 표현하기 · 노동요와 풍속화의 장면 관련지어 보고 조상님들의 생활모습 알아보기	풍속화, 표현 학습지
	정리	· 학습 후 알게 된 점이나 소감 발표하기	

2차시의 도입 단계에서는 붓과 먹으로 그린 그림이란 주제로 수목화를 감상하도록 하였으며, 학생들은 붓글씨에 대해 알고 있는 상태라 거부감 없이 개념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개 단계에서는 1차시에서 학습한 노동요와 관련된 다양한 풍속화를 감상하고, 자신이 가장 인상 깊게 본 그림을 창의적으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노동요와 풍속화를 통해 알게 된 조상님들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생들은 “집을 지을 때 사람 손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노래를 하면서 일을 하니 재미있었을 것 같다”,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였는지 알게 되었다”, “고기잡이 할 때 작은 배를 타고 가니 위험한 것 같다”, “하루하루 행복했을 것 같다” 등의 내용을 발표하여 학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정리 단계에서는 학습 후 알게 된 점이나 느낀 점을 이야기하도록 하였으며, 학생들은 “노래만 들었을 때는 어떤 모습인지 궁금했는데 그림과 함께 알아보니 내용을 더 잘 알 수 있었다”, “노래만 들었을 때에는 무슨 일을 할 때 부르는지 잘 몰랐지만, 그림과 함께 보니 무슨 일을 할 때 부르는 노래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림을 보니까 진짜인 걸 알게 되었다”, “이해를 더 잘 할 수 있었다” 등을 이야기하였으며, 100명의 학생 중 78명의 학생이 노동요와 풍속화를 함께 배우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1] 활동 모습

풍속화 대장간 고기잡이 길쌈 빨래터	일노래 남재주 불무질소리 <table border="1"> <tr> <td>받는 소리</td> <td>매거는 소리</td> </tr> <tr> <td>어어어 서화디어</td> <td>저 도간에 나리는 물은</td> </tr> <tr> <td>어어어 서화디어</td> <td>후회 늦는 냇물이요</td> </tr> </table> 복제주 감지 낚는 소리 강남바다 강갈지야 내 줄은 뽕은 줄이네 원뽕 뽕이 뽕국 뽕기 보라 곡성 삼삼는 소리 남산 선수 권술까지 앞마당에 피어놓고 곡성 석곡 전삼가리 어서삼고 비백 삼세 함평 전주남군 하강 아강 미늘아강 빨래나 하러가라 원주 냇가 빨래기나 물도 좋고 돌도 좋고	받는 소리	매거는 소리	어어어 서화디어	저 도간에 나리는 물은	어어어 서화디어	후회 늦는 냇물이요
받는 소리	매거는 소리						
어어어 서화디어	저 도간에 나리는 물은						
어어어 서화디어	후회 늦는 냇물이요						
2. 노래와 그림을 통해 알게 된 조상님들의 생활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1. 집을 지을 때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2. 노래를 하면서 하니 재미있었을 것 같다. 3.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였는지 알게 되었다.	3. 위의 풍속화 중 하나를 골라 그려보고, 특징을 이야기해 봅시다. 4. 노래와 그림을 함께 공부하였을 때의 느낌과 소감을 적어봅시다. <table border="1"> <tr> <td>노래만 들었을 때</td> <td>노래와 그림을 함께 공부하였을 때</td> </tr> <tr> <td>이해를 잘못했다</td> <td>이해를 더 잘 할 수 있다.</td> </tr> </table>	노래만 들었을 때	노래와 그림을 함께 공부하였을 때	이해를 잘못했다	이해를 더 잘 할 수 있다.		
노래만 들었을 때	노래와 그림을 함께 공부하였을 때						
이해를 잘못했다	이해를 더 잘 할 수 있다.						

[그림 2] 활동 학습지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전통 문화 교육을 위하여 노동요와 풍속화를 접목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현재 시행중인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고찰하여 풍속화와 노동요 지도가 가능한 학년을 선정하고, 통합 방법을 모색하였으며, 초등학교에서 지도하기에 적합한 노동요와 풍속화를 선정하고 두 영역에서 공통 주제를 찾아 지도 내용을 선정하였으며, 학교 현장에서 지도해 보고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음악과 교육과정을 고찰한 결과 전통 문화적인 측면에서 노동요를 지도하기에 적합한 학년은 3-4학년이었으며,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도 풍속화에 대한 내용을 지도하기에 3-4학년이 적합하였다. 또한 각 교과서의 성격은 그대로 두되 공통 내용을 토대로 통합하는 방법인 ‘상관형’으로 통합하여 내용을 제시하였다.

둘째, 풍속화를 고찰해 본 결과 김홍도의 ‘벼타작’, ‘기와이기’, ‘대장간’, ‘고기잡이’, ‘길쌈’, ‘빨래터’ 등의 작품이 초등학교에서 노동요와 통합하여 제시하기에 적합하였으며, 이에 따른 노동요는 ‘벼타작’에서는 ‘홍성 벼 떠는 소리’, ‘서산 벼 드리는 소리’, ‘화천 집터 다지는 소리’, ‘대장간’에서는 ‘남제주 풀무질 소리’, ‘고기잡이’에서는 ‘북제주 갈치 낚는 소리’, ‘인천 만선 풍장 소리’, ‘길쌈’은 ‘곡성 삼 삼는 소리’, ‘빨래터’에서는 ‘함평 진주낭군’과 통합하여 내용을 제시할 수 있었다.

셋째, 수업은 2차시로 구성하였으며, 1차시에서는 노동요를 불러보고 다양한 노동요를 감상하도록 하였고, 2차시에서는 풍속화를 감상하고 특징을 이해하며, 향토민요와 관련지어 조상님들의 생활 모습을 알아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였으며, 학생들은 노래만 학습하는 것보다 그림과 함께 노래를 학습하니 좀 더 흥미로웠고 생활 모습을 사실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응답하여 전통 생활문화 지도에서는 노동요를 단독으로 지도하는 것보다 풍속화와 통합하여 지도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준이나 수업 시수에 따라 내용을 조절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본 연구가 초등학교 음악 교육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국립국악원 (2009), **교육용 국악 표준 악보**, 서울: 국립국악원.
- 교육과학기술부 (201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별책13] 미술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별책 12] 음악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김나래 (2011), **판소리와 조선후기 회화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음악수업지도 방안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김동영 외 (2013), **초등학교 미술 3-4**, 서울: 아침나라.
- 김민영 (2013), **미술과 음악의 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김성민 (2005), **미술 작품을 활용한 통합적 음악 작품 감상 수업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김정희 외 (2013), **초등학교 미술 3-4**, 서울: 두산동아.
- 김혜숙 (2005), **인상주의 음악과 미술의 연계성 수업 방법 연구(초등학교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 노영자 외 (2013), **초등학교 미술 3-4**, 서울: 교학사.
- 박은덕 외 (2013), **초등학교 미술 3-4**, 서울: 비상교육.
- 송자영 (2007), **음악 이미지를 활용한 미술과 수업연구 -고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안금희 외 (2013), **초등학교 미술 3-4**, 서울: 천재교육.
- 안휘준 (1997), **한국 회화의 전통**, 서울: 문예출판사.
- 이은적 외 (2013), **초등학교 미술 3-4**, 서울: 금성.
- 이정민 (2008), **중등미술교육에서 음악을 활용한 표현 수업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 이태호 (1996), **조선후기 회화의 사실정신**, 서울: 학교재.
- 정은경, 장유린 (2012), **풍속화를 활용한 초등 국악 수업 연구 -음악·사회 교과와의 통합 수업 설계**, 국악교육연구.
- 최지환 (1999), **전통음악의 미적 요소에 관한 연구 -전통미술의 한국적 미의식을 바탕으로-**,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 허정은 (2011), **통합적 접근을 통한 우연성 음악-미술의 지도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MBC 우리소리를 찾아서 홈페이지(<http://www.urisori.co.kr/>)

ABSTRACT

Study of Teaching Method About Folk Song with Genre Painting in Elementary School

Hyun-Jung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the educational method of folk song with genre painting for living cultural education. For that, I at first consider genre painting, and I suggest folk songs which are possible to graft onto genre paintings. Secondly, I chose teaching contents and objects by considering features of folk song and educational curriculum, and by analyzing the 2009 revised music curriculum. Teaching objects are chosen for the third or forth grade, and according to the plan, the class is conducted in two stages, where the contents are composed in music activities based on musical essence. I suggested teaching examples according to the teaching level. Throughout this study, I expect that the students will know Korean music properly and expand their musicality by learning various types of Korean classical music.

Key words: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korean folk song education, work folk song, genre painting education

투고일: 2014년 5월 31일, 심사(수정): 7월 29일(8월 5일), 게재확정일: 8월 21일